



“골목상권 회복·소상공인 지원 역량 집중
청년 일자리 확충해 지역 정착 기반 마련
고령화·1인 가구 대응 복지 안전망 강화
돌봄부터 교통·문화까지 생활 불편 개선

AI소통혁신팀 신설, 공공서비스 혁신 시동
복지·안전·교통 분야 AI기술 단계적 도입
구포역·구포시장 활성화로 지역 새 활력
주민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해 변화 실현

”

“민생 살리고 AI 행정 혁신… 구민 ‘삶의 질’ 높이겠다”

인터뷰

정명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 북구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AI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하고 지역 자산의 경쟁력을 높여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을 정명희 구청장으로 부터 들어봤다.

- 민선 9기 구정 방향인 ‘구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북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나

“행정은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는 일이 아니라 주민의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기간 현장을 다니며 아이 돌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기대를 막연한 희망으로 남겨두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북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구정 방향에 담았다.”

- 취임 100일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북구의 현실과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지난 100일 동안 골목과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찾으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중장년층이 지역에서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데 힘쓰겠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 적절

한 복지돌봄 서비스로 연결하는 선제적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포역과 구포시장 등 지역 자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AI 같은 미래 기술을 접목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도 키워가겠다.”

- 최근 AI가 행정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북구가 추진할 AI 행정은 어떤 모습인가

“북구가 지향하는 AI 행정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일상에서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AI소통혁신팀을 신설한 것도 AI 기술을 공공서비스 전반에 적용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복지와 안전·교통·교육·민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부산시의 AI 행정·생활서비스 확산 정책에도 발맞춰 북구를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시험하고 검증하는 생활밀착형 AI 실증 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공식 사회의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겠다. 특히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행정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의 일상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북구가 추구하는 AI 행정의 방향이다.”

- 지난 8일 개최된 북구 미래비전 공유회는 기존의 취임 100일 행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번 공유회는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북구가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행정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앞으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비전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와 바람이 더해질 때 의미를 갖

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의 보고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내빈 인사말 등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목소리와 현장 이야기에 집중했다. ‘답승-이륙-항해-목적지 도착’이라는 여정에 연극 형식을 더해 오늘의 북구에서 더 행복한 내일의 북구로 나아가는 과정을 표현했다.”

“취임 후 100일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현실을 살피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목소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주민과 약속한 변화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이번 공유회의 핵심 의미다.”

- 주민들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강조했다. 임기 동안 어떤 북구를 만들고 싶은가

“눈에 띄는 대형 사업의 성과만을 앞세우기보다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편리함과 행복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과 돌봄·교육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시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도 힘을 쏟겠다. 어르신들은 정든 동네에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출퇴근길의 불편을 줄이고 집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차근차근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주민들이 ‘살아보니 참 편해졌다’, ‘북구에서 사는 것이 참 좋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모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구정을 추진하겠다.”

-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100일 동안 골목과 시장에서 주민들이 건넨 따뜻한 인사와 북구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 살피면서 구청장으로서 맡은 책임과 역할도 다시 한번 되새겼다. 100일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인 만큼 그동안 준비해 온 계획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 청년들에게는 지역에서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과 눈을 맞추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주민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한 실천으로 신뢰에 보답하면서 ‘구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북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위)고령 구민과 대화. (아래)구민의 생각을 더하다 PT.

◆정명희 북구청장 약력

▶ 경력

-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
- 민선7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민선6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기초자치단체장 유임)
- 전) 부산광역시 약사회 약바르게알기 본부장

▶ 학력

- 진해여자중·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구정활동 모습.